

구분	강북영광교회 주일강단
날짜	2024년 9월 29일
제목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1:1-14

녹취

• 서론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즉 복음, 그리스도를 주셨다. 창세전, 영세 전에 벌써 복음을 예비하시고 하나님 떠난 그 순간 즉시 복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게 성경의 복음의 핵심 내용이다. 그런데 요한복음 오늘부터 설교하는데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데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한다. 요한복음 다른 공관복음서와 조금 다르게 조금 다르게 처음 시작을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이것보다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구원 주로 오신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선언부터 하는 것이다.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들을 때 교수님이 강의를 이렇게 하더라.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선언하는가? 마치 팡파레가 울리듯이 개막합니다 하면서 사회자가 외치잖아요? 램프트대회를 시작합니다하면 팡파레, 모든 악기 동원한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되신 그리스도 즉 예수님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선언한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복음의 망대가 더 굳건하게 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어떤 시대라고 하는가? 복음이 약해지고 희미해지고 복음이 완전 사라지고 있는 시대,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 우리가 선교하는 프랑스와 유럽에는 교회가 아예 문을

닫고 없다. 미국교회 우리나라보다 한국 교회보다 더 크고 많죠. 그런데 교회당이 문을 닫고 있다. 팔려나간다. 이런 재앙시대를 맞고 있다. 그게 재앙이다. 사단의 역사 재앙의 놀라운 역사들이 성경말씀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 마24:1-14에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말세지말에 일어나는 분명한 상황과 징조를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다. 그대로 되고 있다. 지금 영적문제 가진 자, 정신병, 정신문제, 노이로제, 공황증, 불안, 스트레스, 심신 미약, 마약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만큼 사단의 역사요 재앙시대인 이때 오늘 요한복음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 말씀으로 복음의 망대를 굳게, 복음의 망대가 굳게 세워지게 되고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고 그리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모든 귀한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 본론

1.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요1:1-4)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다. 요한복음 1장에는 처음부터 도대체 예수님 우리의 그리스도신데 누구시냐? 우리의 구원주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요한복음에는 이것을 선언하듯이 빵빠레 울리듯이 선언하고 있다.

1)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1)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2)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시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태초에 계신 분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되신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3).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4)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놀라운 선언이 선포되고 있다.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 말씀속에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2) 말씀이신 그리스도

말씀이신 하나님입니다. 이상하다, 예수님 말씀이시라고? 또 하나님이지라고? 여러분 무조건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니 믿겠다고 하면 안 된다. 여기에는 무조건 아멘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우리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인데 말씀이시며 태초에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아멘인가?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 믿음 좋다. 아멘하고 계시다.

3) 창조주이신 그리스도 (요1:3)

또 말씀하신다. 태초에 모든 창조되기 전 모든 피조물이 창조되기 전 우리의 생각, 이성으로 가늠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있는 그대로 믿으셔야 된다. 태초에 그보다 더 이전에 선제하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다. 특히 말씀되신 하나님인데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데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오늘 말씀에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는데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모든 피조물들이 지음을 받았다. 즉 창조되었다. 피조된 피조물이다. 창조주가 누구시냐? 말씀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진짜인가? 아멘. 오늘 이 시간 성도님 여러분 내 속에 망대가 복음의 망대가 아멘 하는 순간 세워진다.

또 말씀한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모든 창조받은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창조되었다.

오늘 제가 설교자인데 너무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 우리 성도님들 거침없이 아멘 하신다. 복주십시오, 복 달라, 아멘 할렐루야 옛날 부흥사들 그랬다. 가난한 자 부자되세요 아멘 그랬다. 사업하시는 분 사업 대박 나세요 아멘 그랬다. 그거 아니다. 가짜다. 오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말씀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했다. 사탄의 망대, 의심의 망대 무너지게 되어있다. 하나님의 절대 망대인 복음의 망대가 여러분 믿고 아멘 하는 순간에 내 안에 세워지는 것이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들은 오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이다.

4) 빛이신 그리스도

그다음 또 말씀한다. 빛이신 그리스도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시다. 그 안에 빛이 있었는데 생명의 빛이다. 우리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 되신다. 다른 빛, 참 생명 빛 아니다. 이 빛도 그 빛 아니다. 터키에 가니까 이러더라. 터키가 옛날 오스만 투르크 제국, 오스만 제국 강대국이었다. 그 이후에 복음 없고 나라 망했다. 물론 유럽에서 땅덩어리 크고 그런데 아직 선진국 아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개혁해서 근대 국가로 만든 군인 출신 장군이 있는데 국가 영웅이다. 그 사람을 빛이라고 한다. 자기 조국 터키의 튀르키예 조국 빛이라고 한다. 그런데 빛 아니다. 모든 피조물은 빛이 아니다. 물론 그 빛을 받은 구원받은 빛을 발하는 자이지만 참된 빛, 생명의 빛 아니다. 창조의 빛 아니다. 오직 유일한 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되시며 창조주가 되시며 더군다나 생명의 빛이시다. 또 한 번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 오늘 복음의 망대가 우리 안에 고백하는 순간 믿는 순간 계속 망대가 세워진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빛인데 참 빛이다. 오늘 요 1:9 말씀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다. 예수 그리스도인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다른 빛은 가짜다. 참된 빛 아니다. 생명의 참된 빛 아니

다. 제가 이 말씀을 한 주간 준비하는데 너무 기쁘고 힘이 났다. 다음 주간 강단에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게 흥분되고 그랬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에, 선언하시는 말씀에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아멘 할 때 우리 안에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는 것이다. 다른 틀린 망대, 사탄이 준 망대가 뽐혀나가야 하잖아요? 오직 이 빛 앞에 사탄의 흑암의 망대들이 무너지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참 빛이다. 세상에 비치는 참 빛이다. 유일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

5)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런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또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은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 전 세계를 말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전 세계를 말하고 특히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누구인가? 먼저 우리보다 언약, 복음 받고 이 축복받은 메시아 그리스도 기다리던 바로 유대인을 말한다. 영접하지 않았다. 알아보지 못했다. 그리고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다. 희한하다. 등잔밑이 어둡다 우리 속담에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언약을 외우고 구약부터 전달받아 알고 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자기 백성에게 참 빛 되신 그리스도 왔지만 알지 못했다. 영접하지 않았다.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저와 여러분 이 상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로 참 빛 복음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빛을 영접한 줄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또 고백하십시오. 믿습니까? 아멘. 고백했다.

6) 세례 요한 -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 (요1:6-8)

그런데 요 1:6-8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다. 아담의 후손 원죄를 타고난 그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 될 수 없다. 참 빛이 아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리

스도 참 빛을 안내하고 소개하며 그 길을 예비한 자가 있었다.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남자인데 남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가장 위대한 사람이 있었다. 참 빛 되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주 되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참된 제사장 어린양 소개하는 자 있었다. 그분도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가 왔는데 마지막 선지자다. 세례 요한이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도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확실하게 말한다. 그가 증거 하러 왔는데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참 빛이신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구원주 믿도록 하게 하려 함이라. 역사 일어났다. 예수님께서 인정하듯이 이 땅에 지구상에 남자들 중에 최고의 남자라고 했다. 세례 요한이. 왜 그런가? 참 빛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 주 되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가리키고 그 길을 안내했다. 오직 그리스도만 안내하고 증거 했다. 역사 일어났죠. 역사 일어나니까 다 쫓아갔다. 예수님보다 초기에는 세례 요한에게 더 몰려갔다. 그러니까 다 주목하죠. 물어본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십니까? 워낙 역사 일어나니까. 이러할 때 세례 요한이 깜짝해서 잠깐 교만해서 틀린 말 하면 큰일 나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확실하게 고백했다. 나는 그리스도 아니다. 나는 그의 신들메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내가 가리키는 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시며 요한복음 말씀처럼 참 빛이 되신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가리켰다. 그렇다. 아담의 후손인 원죄를 타고난 그 어떤 자도 그리스도 아니다. 참 빛이 아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의미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가리키고 그 길을 안내한 참 위대한 선지자다.

오직 누가 그리스도인가? 예수께서 그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님 누구신가? 요한복음에 선언하듯이 하나님이시다. 말씀되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다. 참 빛이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에게 성도님 여러분의 가정가문에 혹 사탄의 흑암 망대 있다면 다 무너지게 되

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며 아멘 하죠? 사탄의 망대 무너지고 불신앙의 흑암의 망대 무너지고 복음의 망대,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것이다.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으로 오신 참 빛이 되신 분 오직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분이 빛이시며 참 생명의 빛이다. 오늘 요한복음이 이것을 소개하고 있다.

2.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요1:14)

두 번째다. 두 번째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1)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 오셨다.

최고의 놀라운 비밀이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구원 계획을 우리가 범죄 하기 전에 창세기 3장 사건 에덴동산 실낙원 된 그 사건 전에 벌써 아시고 구원을 예비하셨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다. 구원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계획하셨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시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참 빛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성자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은 이 구원을 성취하셨다. 그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놀라운 비밀이다. 그는 죄인이 아니시다. 하나님이시다. 죄가 없으신,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다.

2) 요 1:14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데 우리 가운데 참 사람으로 우리 사람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한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게 초림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데 참 사람이시다. 어떻게 참 하나님, 참 신성 동시에 참 사

람이 되는가? 우리 인간의 지혜와 우리의 머리로 이해 못한다. 많은 사람이 안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는 이것을 아멘하고 믿는다. 믿습니까? 놀랍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사람이다. 성육신 하셨다. 그러면 요 1:14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말씀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제가 이것을 멋지게 설교, 해석하여 강의하는 식으로 여러분 이해되도록 설교하지 않는다. 선언한다. 하나님이신데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충만하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제가 너무 마음에 기쁘고 좋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아멘 하며 듣고 있다. 하나님의 망대가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는 순간이다. 의심, 염려, 불신앙 안 믿어질 때 어떤가? 우리의 믿음 떨어지고 불신앙 있죠? 지옥가기 직전까지 떨어진다. 말 한마디도 안 믿는다. 사람 말 의심한다. 전해주는데 의심한다. 안 믿는다. 불신앙 일어나면 거기까지 떨어진다. 사탄이 그렇게 역사한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아멘하며 믿을 때 놀라운 역사 일어난다. 사탄의 망대, 사탄, 흑암세력, 불신앙 망대 무너진다.

독생하신 그리스도라고 했다.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다. 이것도 설명할 필요 없다. 그대로 아멘 하면 된다. 희한하다.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각각 위가 같으시고 삼위일체인가? 그것도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는데 아들이 있단 말인가?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

들이십니다. The son of God, 인자라고 한다. 그것을 머리를 굴리면 안 믿어질 수 있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무조건 아멘 하시라. 믿어지면 그대로 믿어진다.

신학교 갔을 때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 차영배 교수님이 조직신학 박사님이 강의하시는데 눈을 지그시 감고 칠판 쓰실 때는 강의할 때 제목만 적고 서서 강의하는 게 아니고 앉아서 강의한다. 그러다가 고함을 한 번씩 친다. 시험칠 때 두렵다. 무슨 문제 나올지 모른다. 강의 내용도 잘 모른다. 그만큼 헛갈리는 게 삼위일체론이다. 그런데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된다.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다음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장하신다. 감동, 감화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 아직도 의심하고 별 별 떨고 불신앙 하는 제자들 어떻게 했는가? 선지자의 그롤 시작하여 언약의 복음의 말씀을 풀어서 그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 감화하셔서 믿게 하셨다. 우리의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자신 내가 믿습니까? 아니다. 아무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신다. 여러분 아멘 시원스럽게 하시는데 정말 그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령께서 오직 나타내 증거 하는 게 있다. 우리의 마음에도 역사하셔서 감동, 감화하게 하셔서 그렇게 하지만 역시 성령 하나님 오직 한 개다.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게 하도록 역사하신다. 오직 한 개다.

그런데 사탄의 망대 속에 갇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이 은혜를 전혀 받지 못했다. 오늘 요 1:9 말씀에 말한 것처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비치지만, 11절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들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영접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탄의 망대가 되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그리스도 구원의 언약 성취하는 이면에 쓰임 받

고 말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말씀되시며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되시며 생명의 유일한 구원의 빛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하게 되시고 믿게 되시고 든든한 굳건한 망대가 세워지는 역사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 이 사탄 벌벌 떨고 도망갈 것이다.

3) 아담의 후손, 마귀 자녀가 아님 (요8:44, 롬3:23) - 원죄가 없으신 하나님인신 그리스도

그다음에 우리의 구원주 되신 하나님인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다. 마귀 자녀가 아니다. 그리고 롬 3:23 말씀처럼 원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 그리스도시다. 창 3:15 여자의 후손 그 주인공이시다. 마 1:18에 그래서 하나님인데 그런데 우리에게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성육신 하실 때 그 놀라운 비밀이 무엇인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다. 마 1:18에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또 말씀한다. 저에게 잉태된 것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다. 원죄를 타고난 마귀자녀 아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육신 하여 오신 그리스도 놀라운 비밀이다.

4)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생명의 빛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만이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시다. 그분만이 유일한 생명의 빛이 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결론도 주제도 선언하지만 주제가 되는 그 복음의 핵심도 선언하지만 결론도 선언해 버린다. 그게 요 1:12 말씀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

도로 오신 참 하나님이시며 말씀이시며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그분만 아니라 생명의 빛 되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라는 것이다. 이게 결론이다.

그리고 구원받으라는 것이다. 요 5:24에 말씀한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말씀에도 보면 믿는 자라고 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며 말씀되신 창조주이시며 창 생명 되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말이다. 믿으라는 그 말이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문제는 믿으라는 것이다.

요 20:31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 이 축복을 받았는가? 받았다.

• 결론

결론이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참 잘한 질문이다. 제자, 사도들도 엉뚱한 질문 많이 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진짜 핵심을 질문했다. 질문하기를 무슨 질문했는가? 그때 예수께서 생명의 떡 되시는데 육신의 떡, 물고기 나눠줬다. 잔치, 페스티벌. 그런데 생명 되신 참 떡이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참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따르지 않고 제자가 되지 않고 보니까 배부른 다음에 다 떠나갔다. 사건, 문제, 핏박 있을 때 다 도망갔다. 그때도 마찬가지다.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다르며 제자 될 줄 알았는데 사도들과 제자 몇 명 빼고 다 도망갔다. 이러할 때 제자들이 질문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렇게 질문했다. 이러할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저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선포하겠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시다. 말씀되셔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더군다나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있었나니, 생명의 빛 되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 주 되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 전도 선교하여 237 5천 종족,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이 참 빛 되신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전도캠프해서 많은 사람 생명 살리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이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에 증인 되는 멋진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 하는 증인 다 되시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 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신데 참 사람으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는 참 말씀되시며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되시며 무엇보다도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있었으니 참 빛이신 우리의 생명의 구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입니다. 이 시간 믿고 고백하며 영광 돌립니다. 오직 참 빛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인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증거 하는 증인 되는,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하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 사명자들 램넛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빛 되신 우리 가운데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